

주보 내용(Bulletin Announcement):

###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We are His Witnesses”: 토빈 추기경의 사목 서한

토빈 추기경님은 뉴욕 대교구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목 서한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We are His Witnesses”** 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한은 대교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목적 쇄신, 제자의 선교 마음, 그리고 시노달리티에 대한 초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반영하며, 갱신, 협력, 선교적 아웃리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다년간의 계획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활기차고 희망찬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를 읽고,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세상에서 그의 증인이 되는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We are His Witnesses”: Tobin 추기경의 사목 서한

#### 뉴욕 대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및 평신도 신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사도행전 5:30-32)*

####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속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적 권고를 교황님의 교황직의 기초 문서라고 부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기쁨"을 쓴 이후로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은 이 비전적인 성찰에 담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전진시켜 왔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발표된 지 거의 3년 후인 2016년 11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저를 뉴욕 대교구의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의 첫 사도적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 쓴 것 외에는 이 지역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의제나 프로그램적 비전 없이 두 달 후 북부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대교구에서 7년 동안 사목 하면서, 저는 뉴욕 대교구의 4개의 다양한 카운티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직면한 희망과 두려움, 기쁨과 좌절, 기회와 도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성적 스캔들, 팬데믹, 경제적 불안함, 사회적 불안, 그리고 북부 뉴저지에서의 성장과 감소를 포함한 중요한 인구 변화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혼란과 일상 생활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교회의 일시적 폐쇄와 같은 가톨릭 신앙 표현 방식의 조정으로 상징됨).

### 활기차고 다양한 가톨릭 공동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견뎌내고 다양한 신앙 공동체로서 번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사로 하느님을 예배하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형제자매들을 돕고 있습니다. 희망의 징후로는 인구 증가, 다양한 영적 운동과 사목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평신도 여성과 남성의 참여, 그리고 에누얼 어필에 기부하는 기부자 수와 기부 금액의 증가가 포함됩니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이 대교구를 축복하시며, 저는 우리를 성찬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가족으로서 유지하고 새롭게 하는 성령의 선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부 뉴저지의 교회를 볼 때, 저는 헌신적인 주교,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와 함께 하는 활기차고 다양한 가톨릭 공동체를 봅니다. 이 지역 교회는 우리 앞에 온 이민자 세대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분당, 학교, 가톨릭 조직을 세웠습니다. 또한, 저는 성령의 힘을 받아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대교구를 봅니다.

오늘날 북부 뉴저지의 교회를 위한 제 비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에서의 말씀을 제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공동체가 사목적 선교적 쇄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EG #25).

우리가 북부 뉴저지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사목적 쇄신과 선교적 제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6). 그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라고 초대하십니다.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저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과 고난의 종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사야 43:1-20 참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주님은 그의 충실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종들이다 [이름으로 부른]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확신과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하느님 자신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솟아나지 아니하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의 임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생각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목적 변화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말을 듣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딸과 아들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순례 하면서,

세상에서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집의 편안함을 떠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 “시노달리티”

우리가 함께 순례하는 여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시노달리티"입니다. 이 용어는 오늘날 종종 오해되지만, 천주교 역사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을 실어주시는 성령께서 초기교회의 지도자들을 기도하고 대화로 모아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부활하신 주님의 선교적 제자로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티가 교회 가르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사는 방식입니다. 시노달리티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열려 있고 반응하는 사목적 리더십의 스타일입니다. 시노드 정신의 리더십은 모든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의 삶과 사역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구성원이며,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심과 선교적 제자로 부름 받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교회 구조 - 우리의 본당, 학교, 모든 가톨릭 기관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개인과 공동체로서 새롭게 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기쁨을 우리 집에서부터 지구 끝까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티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경직된 이념을 거부하고, 살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과 죽은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교제를 포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 함께 순례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북부 뉴저지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종 문서, "**시노드 정신을 사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 사명**"은 지난 10 월 로마에서 열린 시노드의 결론에서 교황님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관찰을 합니다:

*교회는 역사상 결정적인 사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부활하신 분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당신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자유의 원천이고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의 토대이며 하느님의 참 얼굴과 인간의 궁극적 운명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14)*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선교적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자유와 희망의 원천이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희망을 잃은 형제자매들에게, 북부

뉴저지에서든 세계 어느 곳에 서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길을 잃은 자들과 외로운 자들에게 증언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얼굴이자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질문들

여러 중요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이 놀라운 진리에 충실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이 순간에 사목적 전환과 선교적 제자로서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명확히 모르는 우리가 미래의 사역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교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과 그와 유사한 많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 대교구는 북부 뉴저지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대응을 제공하기 위한 다년간의 계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우리 대교구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육성하는 것(시노달리티)에 기반을 두며, 교회의 사명에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보조성과 연대 subsidiarity and solidarity**).

이 과정의 중심에는 대교구와 본당 지도자들 간의 협력과 공동 책임의 정신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뉴약 대교구의 미래를 분별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 새로운 사목적 계획 과정은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We are His Witnesses")**라고 불립니다. 이 사목적 서한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대교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하는 분별에 의해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는 다음 질문들을 다룰 것입니다:

-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하는 북부 뉴저지의 환경에서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시노달리티 개념을 더 효과적으로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북부 뉴저지에서 대담한 선교적 아웃리치를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버겐, 에섹스, 허드슨, 유니언 카운티의 다양한 이웃에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까? 평생 신앙 형성과 영적 갱신에 대한 증가하는 열망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대교구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더 깊은 공동 책임감과 협력감을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 **우리가 함께 그곳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목적 전환과 선교적 제자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사목적 사역, 시스템, 구조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까? 지역 구조를 더 잘 활용하여 본당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보조성과 연대의 개념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에 진정으로 기반을 둔 사목 계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각 영역은 기도하는 분별, 주의 깊은 경청,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탐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이나 준비된 해결책 없이 이 과정을 접근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우리 대교구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는 본당, 학교 또는 기타 기관을 폐쇄하거나 통합하려는 숨겨진 의제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교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과 미래에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사목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갱신의 과정에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스에 대담하고 용감하게 응답해야 하지만, 사역, 서비스 또는 구조에 대한 모든 변화는 신중한 상담, 열린 대화, 하느님의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뜻에 대한 기도하는 분별의 결과일 것입니다.

### 협력적 리더십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19-20).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심각하다고 상기시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뒷받침해 줄 신앙 공동체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EG #49).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우리 세상에서 일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손과 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버겐 카운티의 지역 주교인 Michael Saporito(마이클 사포리토) 주교님이 이 계획을 이끌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포리토 주교님은 계획 과정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사목 지도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보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상담을 촉진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새로 구성된 사목 계획 위원회의 (Commision on Pastoral Planning) 구성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능 있는 개인들은 사포리토 주교님을 도와 이 포괄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시간을 기꺼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과 통찰력은 우리 대교구 가족의 모든 구성원 간의 협력과 공동 책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목 계획 위원회의 (Commision on Pastoral Planning) 구성원은:

Sr. Tom Abrams | Santa Elena - Westfield  
 Sr. John Camargo | Santa María - Plainfield  
 Dr. Anthony Carlino, MD | Inmaculado Corazón de María - Scotch Plains  
 Fr. Esterminio Chica | Cristo Rey - Jersey City  
 Sr. Donna Ciangio, O.P. | Archdiocese of Newark  
 Sra. Carol Conklin-Spillane | San Pío X - Old Tappan  
 Sra. Brigid D'Souza | San Aedan - Jersey City  
 Hna. Sandy DeMasi | Santa Rosa de Lima - Short Hills  
 Sr. Philip DeRosa | San José - Oradell  
 Sr. Paul Eberle | Nuestra Señora de Lago – Verona  
 P. Juan José Esteban | Santa Catalina of Siena - Cedar Grove  
 Sra. Sonja Garlin | San Patricio y Asunción/Todos los Santos - Jersey City  
 Sr. Marco Guerrero | San Juan Pablo II - Bayonne  
 Sr. Chris Haliskoe | Santa Ana - Hoboken  
 Sra. Christine James | Santa Teresa de Calcuta – Montclair  
 P. Kevin Kilgore | San Pío X - Old Tappan  
 Fr. Robert McLaughlin | Our Lady of Perpetual Help Parish - Oakland  
 Sra. Rosemary Nwabueze | Cristo Rey - Jersey City  
 Mons. Thomas Nydegger | Santa Elena - Westfield  
 Dr. Thomas Ortiz, MD | San Casiano - Montclair  
 Sr. Carlos Peña | San Juan Evangelista - Bergenfield

Sra. Maria Pilar Salamanca | San José - Jersey City

Fr. Charles Pinyan | Archdiocese of Newark

Deacon Asterio Velasco | Archdiocese of Newark

Sra. Maria Zamora | Basílica Catedral del Sagrado Corazón

사포리토 주교님, 계획 위원회 구성원, 대교구 직원들이 이 사목 계획의 일상 운영을 촉진할 것이지만, 뉴욕 대교구의 모든 사람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자매로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된 일정은 2026년 여름까지 통합된 사목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는 북부 뉴저지에서 하느님의 백성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뿌리를 둔 미래를 함께 형성할 것입니다.

### 우리의 미래

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나 현재와 매우 다를까요? 제 희망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성공과 성취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요청하시는 새로운 방향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계획에서 진정한 사목적 전환과 우리 백성의 가장 깊은 필요에 응답하는 선교적 제자도의 깊은 표현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목 계획 과정의 초기 단계로서, 저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본당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목 및 재정 위원회를 설립하고, 본당 지도자들이 선교적 전망을 가진 시노드 정신의 리더십 교육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모든 목사에게 "공유 본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영하고, 소그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 형성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모든 본당이 크기나 위치에 관계없이 미래의 형태를 분별하는 능력을 양성 시킬 수 있는 다른 본당과의 새로운 연합에 열려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말씀과 성사로 그의 백성의 굶주린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집 없는 자를 보호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교구의 모든 4 카운티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에서 태어난 힘, 빛, 위로 없이, 신앙 공동체의 지원 없이, 삶의 의미와 목표 없이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부분도 없도록 하는 그의 증인이 될 책임을 받아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는 시노드의 정신으로 공동 책임을 지는 사목 리더십을 가진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느님의 말씀과 모든 형제자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변화하는 상황에 신앙으로 응답하고, 뉴욕 대교구에서 계속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전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기 위해 희망 속에서 나아갑시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구속자 안에서,

Cardinal Joseph W. Tobin, C.Ss.R.

뉴욕 대교구 대주교



### 시노달리티 (Synodality)

**시노달리티**는 교회 내외에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통합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를 육성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시노달리티**는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귀를 기울임, 기도하는 분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목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구성원을 공동 책임으로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시노달리티**는 개인주의와 경직된 이념을 거부하고, 살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과 죽은 모든 구성원들의 교제를 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 함께 순례합니다.

성 바오로 6 세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팎의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 보편성은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모두를 환영 합니다.

### 보조성 (Subsidiarity)

보조성은 결정이 가능한 한 가장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조성은 개인의 이익이 공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촉진합니다. 이는 지역 그룹이 그들의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것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가톨릭 교리는 보조성이 공동 책임, 협력, 참여를 촉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원을 지역 공동체에 할당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상위 구조는 하위 구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연대 (Solidarity)

연대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연대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통합되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개인과 공동체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하느님의 가족의 일부입니다. 이 가족은 가까운 친척, 이웃 또는 한 나라의 시민을 넘어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안녕을 돌보며 공정한 대우와

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라텔리 투티* (모든 형제) 116 항에서 이렇게 씁니다. “연대는 단순히 산발적인 관대함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수에 의한 재화의 점유보다 모든 사람의 삶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빈곤, 불평등, 일자리, 토지 및 주택 부족, 사회적 및 노동권 부정의 구조적 원인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